

## 민사의 지역경제

민선 5기 이것만은 쟁겨라

# 자동차·가전 키우고 건설·유통 살려야

지방선거가 끝났다. 새로 출범하는 민선 5기 광주호(號)는 취약한 산업구조로 성장지체·침체에 허덕이고 있는 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3대 주력산업인 자동차·가전·공산업과 산업단지는 고용 없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광산업은 선도기업 부재로 도약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산업구조의 아킬레스건인 건설업 편중은 대표 기업들의 잇단 법정관리로 지역경제가 뿌리째 훔들리는 현실로 돌아왔다.

서민 삶의 짓줄인 '골목상권'은 자본과 물량을 앞세운 대형유통업체의 공세로 명맥 유지도 힘겨운 실정이다. 민선 5기 단체장들이 꼭 풀어야 할 지역경제의 주요 현안을 짚어본다.

## ① 일자리 만들 새 동력 찾아야

지난해 말 광주의 고용율은 56.4%로 전국 평균(58.6%)보다 낮았다. 청년 고용율은 37.0%로 7대 대도시 가운데 6위였고 여성 고용율은 전국 평균에 뒤미쳤다.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지표다.

원인 중 하나는 건설경기 침체다. 지역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취약한 산업기반

속에 건설업마저 흘러리자 지역경제 전체가 생기를 잃었다. 새로운 성장엔진이 필요하다. 자동차·가전·공산업 등 기존 3대 주력산업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전기차시장을 선도할 녹색산업, 가전과 로봇·공산업이 연계된 첨단 응집화사업, 문화수도를 뒷받침할 문화산업 육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 ③ '부도 도미노' 건설업 회생대책

금호산업·남양건설·금광기업 등 간판급 건설사가 줄줄이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지역 건설업이 초토화되고 있다.

수많은 협력업체와 관련업체가 도산하고 이를 인한 일자리 감소, 소비 위축, 지역금융 부실화로 지역 경제가 뿌리째 훔들리고 있다.

금융기관의 엄격한 신용위험 평가까지 겹쳐 건설업계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다.

경제논리만을 내세운 구조조정보다는 지역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 기여도 등을 고려한 완급조절이 필요하다.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도 단기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업체까지 '부도 도미노'에 휘말리게 해서는 안된다.

무조건 돈줄만 훑을 것이 아니라 육석을 가려 적극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④ 골목상권·대형유통업체 상생

광주는 인구대비로 볼 때 전국에서 울산 다음으로 가장 많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서 대형 유통업체의 최대 각축장이다. 이들은 지역 상권과 유통망을 장악하게 될 힘을 모아야 한다"며 "대형 유통업체의 신규 출점을 규제하고 중소 상공인들도 살 수 있는 풀뿌리 경제 활성화 대책을 세워 달라"고 호소했다.

김용재 중소상인실리기 광주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SSM 허가제 등을 딛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속속히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대형 유통업체의 신규 출점을 규제하고 중소 상공인들도 살 수 있는 풀뿌리 경제 활성화 대책을 세워 달라"고 호소했다.

## ⑤ 영세 광산업 선도할 기업 유치

광주 광산업은 지난해 매출액 2조 200억 원을 달성하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지만, 도약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신규시장 개척과 시장 자배력을 높이고 고용·산업 파급효과를 높일 선도기업이 부재한 탓이다.

광주에 327개의 광산업체가 있지만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업체가 5.8%(19개)에 불과한 데다 설립한 지 5~10년 미만인 영세업체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노동집약적 조립·생산 제품에 주력하고 있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데 역부족이다.

원천기술과 생산력을 갖춘 중견 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지 않고서는 광산업의 제2의 도약을 기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박정국기자 jwpark@kwangju.co.kr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기아차 노조 특근 거부 비상

'6월 특근' 중단 선언... '쏘울' '스포티지R' 생산 차질 우려

기아자동차 노조가 이번 주말부터 특근을 거부하기로 했다. '쏘울'에 이어 '스포티지R'의 런칭 성공으로 대박을 이어가고 있는 광주공장에도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에 따르면 회사 측의 노사협상 거부에 따라 노조는 '6월 특근 협의' 중단을 선언했다. 통상 기아차 노사는 매월 말일 전에 생산 협의를 통해 다음달 주말 특근 일정을 결정해왔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 핵심 사항으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제시하며 노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이의 철회를 요구했고, 노조는 주말 특근 거부로 맞선 것이다. 노조가 4일 임단협 상견례를 재요청해 사측의 참석 여부에 따라 특근이 이뤄질 수도 있지만, 사측의 입장이 강경해 임단협 개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당장 이번 주말인 5일부터 광주공장을 비롯해 전 공장이 주말에 멈춰야 된다.

이에 따라 광주공장의 간판인 '쏘

울'과 '스포티지R'의 생산 차질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특히 '스포티지R'은 출고대기 차량만 5000대에 달해 지금 계약해도 최소 한 달 보름 이상은 기다려야 해 고객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지난 4월 말 출시 이후 5월 한달동안 1만대(내수 4859대, 수출 5127대)가까이 판매해 국내 SUV 시장을 선행한 '스포티지R'의 패속 질주에 제동이 걸리지 않으면 우려된다"며 안타까워했다.

/박정국기자 jwpark@kwangju.co.kr



## 내 일자리는 없다

3일 광주 하남산단관리공단 대회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전문계고 취업희망자를 위한 기능인력 채용박람회'에서 참가 학생들이 구인 게시판을 들여다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택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 나대지 등 종합부산토지 5억원, 사업용 건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과세된다.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b>코스피지수</b>
1,661.84 (+31.44)
<b>코스닥지수</b>
495.74 (+6.95)
<b>금리 (국고채 3년)</b>
3.63% (+0.06)
<b>원·달러 환율</b>
1,197.50원 (-19.0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 올 광주·전남 종부세 2530명 부과

### 지난해보다 10% 늘듯

국세청은 주택·토지 가격 상승 여파로 종부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주택·토지 공시가격이 오르고 별도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당초 70%에서 75%로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과대상이 25만여 명으로 작년보다 1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광주·전남 지역 종부세는 지난해 2300명 보다 10% 증가한 253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예상 세수도 지난해 광주·전남·북을 통틀어 147억 원이었으나 올해 14% 가까이 늘어난 1조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개인별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주

택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 나대지 등 종합부산토지 5억원, 사업용 건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과세된다.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국세청은 주택·토지 가격 상승 여파로 종부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주택·토지 공시가격이 오르고 별도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당초 70%에서 75%로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과대상이 25만여 명으로 작년보다 1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광주·전남 지역 종부세는 지난해 2300명 보다 10% 증가한 253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예상 세수도 지난해 광주·전남·북을 통틀어 147억 원이었으나 올해 14% 가까이 늘어난 1조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개인별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주

택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 나대지 등 종합부산토지 5억원, 사업용 건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과세된다.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국세청은 주택·토지 가격 상승 여파로 종부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주택·토지 공시가격이 오르고 별도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당초 70%에서 75%로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과대상이 25만여 명으로 작년보다 1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광주·전남 지역 종부세는 지난해 2300명 보다 10% 증가한 253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예상 세수도 지난해 광주·전남·북을 통틀어 147억 원이었으나 올해 14% 가까이 늘어난 1조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개인별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주

택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 나대지 등 종합부산토지 5억원, 사업용 건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과세된다.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국세청은 주택·토지 가격 상승 여파로 종부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주택·토지 공시가격이 오르고 별도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당초 70%에서 75%로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과대상이 25만여 명으로 작년보다 1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광주·전남 지역 종부세는 지난해 2300명 보다 10% 증가한 253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예상 세수도 지난해 광주·전남·북을 통틀어 147억 원이었으나 올해 14% 가까이 늘어난 1조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개인별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주

택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 나대지 등 종합부산토지 5억원, 사업용 건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과세된다.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국세청은 주택·토지 가격 상승 여파로 종부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주택·토지 공시가격이 오르고 별도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당초 70%에서 75%로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과대상이 25만여 명으로 작년보다 1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광주·전남 지역 종부세는 지난해 2300명 보다 10% 증가한 253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예상 세수도 지난해 광주·전남·북을 통틀어 147억 원이었으나 올해 14% 가까이 늘어난 1조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개인별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주

택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 나대지 등 종합부산토지 5억원, 사업용 건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과세된다.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아담공인중개사

010-3616-8698

062-233-2222

### ●태양광부지 구함●

#### 나대지.

서구 삼촌동 호남대 건너편 군관교 1,845평. 제1종 일반주거지역, 10m 진입로, 폐지 3.3㎡당 160만 원, 종교시설, 요양원지지.

#### 식당·전원주택.

광산구 삼일동 호남대역